

퍼지셋 분석을 통한 광역시·도 지역 시민사회단체 역량비교 연구

허태욱* · 조현정**

Comparing the Capacity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of Metropolitan Areas in S. Korea through the Fuzzy-set Analysis

Taewook Huh* · Hyunjung Cho**

요약 : 이 연구는 “한국 시민행동지수(CAI) 종합조사” 결과를 재구성하여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광역시·도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시민행동지수 측정결과를 퍼지소속 점수화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6개 광역시·도는 8개의 퍼지셋 이상형으로 유형화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시민행동지수의 3가지 범주인 ‘사회운동성’(CM), ‘지속가능성’(SU), ‘환경적응성’(EA)이 모두 높은 CM*SU*EA 유형(I 유형)에는 대구광역시(퍼지셋 소속점수 0.605), 울산광역시(0.563), 제주도(0.535), 전라북도(0.269)가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가지 범주(사회운동성, 지속가능성, 환경적응성)가 모두 낮은 cm*su*ea 유형(VIII 유형)에는 부산광역시(퍼지셋 소속점수 0.836), 전라남도(0.688), 대전광역시(0.513)가 포함되었다. 이 연구는 ‘비(약)시민운동성(cm)’, ‘비(약)지속가능성(su)’, ‘비(약)환경적응성(ea)’의 부정범주로 분석되는 특성들과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실천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더불어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 정부가 관련 역량을 증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을 도출한다.

주제어 : 퍼지셋 이상형 분석, 시민행동지수, 사회운동성, 지속가능성, 환경적응성

ABSTRACT: This study aims to reconstruct the result of “Korea Civic Action Index (CAI) Survey” and conduct the fuzzy set ideal type analysis. The measurement results of CAI of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the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by the fuzzy membership. As a result, the sixteen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are typed into the eight fuzzy-set ideal types. In particular, the CM*SU*EA type (Type I) that has the high degree of three categories of CAI ('Civil Mobility'(CM), 'Sustainability'(SU), and 'Environment Adaptability'(EA)) includes Daegu Metropolitan City(fuzzy-set membership score of 0.605), Ulsan Metropolitan City(0.563), Jeju-do(0.535), and Jeollabuk-do(0.269). On the other hand, cm*su*ea type (Type VIII), with the low degree of the three categories of CAI, includes Busan Metropolitan City(0.836), Jeollanam-do(0.688), and Daejeon Metropolitan City(0.513).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apacities in relation to the characteristics analyzed by the negative types of the three categories of CAI ('cm', 'su' and 'ea'), and also draws implications for the loc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the metropolitan governments to promote and support these capabilities.

Key Words: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Civil Action Index, Civil Mobility, Sustainability, Environment Adaptability

*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연구조교수, 주저자&교신저자 (E-mail: twuh@kaist.ac.kr, huh9595@naver.com)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공동저자

I. 들어가며

사회구성원들이 개인화·분절화되고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시민사회단체(CSOs: Civil Society Organization)¹⁾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구화(Globalization), 4차산업혁명(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지방분권화(Decentralization) 등 거대한 구조적 전환 속에서 시민사회단체가 갖는 참여민주주의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핵심주체 역할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Keane, 2013; Lawther, 2002; Thomas, 2013; 박상필, 2012). 이러한 흐름 속에서 특히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활동범위의 확장 측면(환경, 여성, 복지, 인권 등)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다층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기존 시민사회 활동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주체로 지역사회 정치적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역량을 개선시키는 데에까지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Keane, 2013; Uphoff, 1993; 2000). 이러한 측면에서 시민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지역사회와 긴밀한 연계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Bernhard, et al., 2015; Buckwalter, 2014; Fukuyama, 2001; 공석기, 2016).

이 연구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의 역량을 광역시·도 지역별로 비교분석하기 위해 <한일장신대 SSK-NGO 연구단>에서 개발한 '시민행동지수'(CAI: Civic Action Index)를 재구성하여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수행한다. '시민행동지수'(CAI)는 한국 시민사회운동

의 특수성과 역동성을 반영하기 위해 전국을 서울과 6개 권역으로 나눠 주요 지역현장에서의 목소리를 FGI(Focus Group Interview) 방식으로 반영하여 개발되었다는 장점을 지닌다. 즉, 기존에 논의됐던 시민사회 역량 측정에 관한 이론적인 면뿐만 아니라 지역 현장 내 활동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어 실천적 측면도 종합한 첫 시도라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한국시민행동지수 종합조사”(한일장신대 SSK-NGO 연구단, 2016)의 결과 분석과 활용 측면에서 존재하는 한계점을 ‘시민행동지수’ 연구자들(6명)과의 심층 인터뷰(반구조화 인터뷰, 대면·전화 인터뷰)로 밝힌다.²⁾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을 활용하여 16개 광역시·도별 시민행동지수를 비교분석하고 유형화한다(STATA 12.0 활용). 퍼지셋 분석방법론은 질적 비교 분석(QCA)으로 특별한 사례연구 방법론인데, 집합의 속성(set theory)을 이용하여 0과 1 사이에서 다양한 소속점수를 갖는 퍼지집합의 활용을 통해 부분적인 소속(membership)뿐만 아니라 정도(degree)의 차이도 보여줄 수 있다. 퍼지소속 점수(fuzzy membership score)로 나타나는 결과로 집합 이론을 적용하여 퍼지집합으로 전환된 이상형(이념형) 개념에 분석대상(광역시·도 지역 시민사회단체)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여주고, 기존의 시민행동지수 결과 원자료를 퍼지셋 소속점수로 변환해 각 유형에 속하는 정도를 분석한다.

이러한 퍼지셋 이상형 분석결과는 ‘시민행동지수’의 평균결과 값으로는 비교하기 어렵거나 단순

1) 한국사회에서는 시민사회의 자발적 결사체를 지칭하는 단어로 시민사회단체, NGO, NPO, 시민단체, 사회단체, 민간단체, 비영리단체 등 여러 가지가 혼용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시민사회단체’로 통일한다.

2) 개별 인터뷰는 2016년 1월부터 5월, 2017년 2월에 이루어졌다.

양적비교로 순위를 매기는 정도로밖에 결과 해석을 할 수 없었던 기존의 한계를 넘어 더 구체적으로 각 16개 광역시·도의 지역별 특성과 유형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이 연구는 기존 시민행동지수의 3가지 범주(‘시민운동성’, ‘지속가능성’, ‘환경적응성’)의 혼합적 특성들이 지역별로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지 이론적·내용적으로 보완하여 시민사회의 질을 실제적으로 반영하고자 했다는 것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기존의 주류 양적방법 적용에 한계를 보인 지표인 시민행동지수에 퍼지셋 이상형 방법론을 적용하여, 한국의 지역별 시민단체 역량들을 입체적으로 비교한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부정의 범주(‘비(약) 시민운동성’, ‘비(약) 지속가능성’, ‘비(약) 환경적응성’) 특성의 문제를 극복하는 측면에서 시민사회단체 역량발전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시사점과 대안을 제시한다.

II. 시민사회단체 역량 비교분석과 시민운동지수

1. 지역 시민사회단체 역량 진단을 위한 시민사회지수

시민사회단체 활동이 다양해지고, 시민사회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민사회지수가 개발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세계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CIVICUS(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에서는 시민사회를 다층적 측면에서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모형인 시민사회지수(CSI: Civil Society

Index)를 개발해 국가별 시민사회 역량 평가를 진행해왔다(CIVICUS, 2006; 2013). CIVICUS의 시민사회지수(CSI)는 조직적 관점이나 경제적 규모를 넘어 다양한 가치가 투입되고 여러 활동이 일어나는 영역적 관점에서 시민사회를 바라보며, 정부와 기업을 비롯하여 외부 기구와의 상호작용도 중시한다. 또한, 시민참여를 비롯하여 각종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한다(CIVICUS 2010; 2011). CIVICUS의 시민사회지수는 초기에 ‘구조’, ‘공간(환경)’, ‘가치’, ‘영향력’의 4가지 구조로 구성되었지만, 2008년 이후에는 ‘구조’를 ‘시민참여’(civic engagement)와 ‘조직수준’(level of organization)으로 구분하여 ‘가치실행’(practice of values), ‘영향력 인지’(perception of impact), ‘외부환경’(external environment)’ 포함 5개 분야와 총 27개 지표로 구성되어 시행되고 있다(CIVICUS, 2012; 2013; 박상필, 2012).

또한, <표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런던경제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 글로벌 거버넌스 센터도 세계시민사회지수(Global Civil Society Index)를 개발·시행하고 있으며(Anheier, Helmut, and Sally Stares, 2002; Bernhard et al., 2015), 미국 국제개발처(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는 1997년부터 시민사회 조직 지속가능성 지수(CCOSI, Civil Society Organization Sustainability Index)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³⁾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 2012)도 시민사회지수를 측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회대학교 아시아·NGO정보센터(2002~2003)와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2003~2006)에서 CIVICUS의 시민사회지수(CSI)를 활용하여 한국시민의 건강성을 측정하는 연구를 진

3) www.usaid.gov/what-we-do/democracy-human-rights-and-governance/cso-sustainability-index-methodology

〈표 1〉 시민사회지수(civil society index) 관련 주요 연구

구 분	내 용	연구기관
시민사회지수 (CSI)	- 초기: 구조, 공간(환경), 가치, 영향력 - 최근: 구조(시민참여, 조직수준), 가치실행, 영향력인지, 외부환경	국제 NGO 연대조직 시비쿠스(CIVICUS)
시민사회 조직 지속가능성 지수 (CCOSI)	- 법적 환경, 조직역량 - 재정계획 실행가능성, 옹호 - 서비스 제공, 인프라, 공공이미지	미국 국제개발처(USAID)
Civil Society Score	- NGO의 성장 - 조직의 역량과 재정의 실현가능성 - 법적/정치적 환경 - 무역연합의 발전 - 정책 결정에 이익집단의 참여	Freedom House(2012)
CSI 모형사용	한국시민사회의 건강성 측정	성공회대학교아시아 NGO정보센터 한양대학교 제3센터연구소
지역사회 사회의 질	- 지역사회제도역량(복지, 교육, 문화, 의료) - 지역사회 시민역량 (사회참여영역, 정치참여영역) - 지역사회 건전성 (출산율, 사망률, 범죄율, 자살률)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출처: USAID 홈페이지, CIVICUS(2006), 한일장신대 SSK-NGO 연구단(2016), 박상필(2012), Freedom House (2012),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홈페이지의 내용 재구성

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는 지역사회 사회의 질을 지역사회 제도역량(복지, 교육, 문화, 의료), 지역사회 시민역량(사회참여영역, 정치참여영역), 지역사회 건전성(출산율, 사망률, 범죄율, 자살률)의 3가지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다양한 시민사회지수 연구들의 근간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CIVICUS의 시민사회지수(CSI)는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CIVICUS의 시민사회지수(CSI)는 정책결정자의 활용 유용성과 지수 범위 확대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수 구성 같은 모형의 정교성을 비롯해 표본의 대표성, 통계자료의 확보, 시민사회단체(CSO)의 범주구분의 모호성, 설문항의 구성 등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박상필, 2015; 2016; 조효제, 2005). 더불어,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역과 분야 측면에서의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있다는 한계점과 지수의 측정결과를 국가적으로만 비교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태적 차원에서 조직 구조(수준)를 측정하는 CIVICUS의 시민사회지수(CSI)를 한국의 (지역)시민사회단체에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한국의 압축적인 민주화와 산업화, 세계화 편입 과정에서 역동적으로 진행된 시민사회단체의 사회운동성을 파악하기에 여러 가지 한계점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노진철, 2016; 이창언, 2016). 또한, CIVICUS의 시민사회지수(CSI)는 단일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역별·분야별 다양한 특성을 담아내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조효제, 2005; 박상필, 2012).

2. 시민운동지수(CAI)의 의미와 한계

이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지역별·분야별로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지수로 개발된 시민행동지수(CAI: Civic Action Index (CAI), 한일장신대 SSK-NGO 연구단 개발)에 주목한다. 이 지수는 전국(7개 권역: 강원, 경기, 대구, 부산, 서울, 제주, 충남, 충북)을 대상으로 8개월(2014년 12월~2015년 8월) 동안 각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운동활동가와 의견을 교환하고 시민운동 현장을 견학하는 방식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 방식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지표를 수정해나가는 방법으로 개발되었다(이남섭, 2016; 한일장신대 SSK-NGO 연구단, 2016). 또한, “한국시민행동지수 종합조사”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센터가 제공한 『시민사회단체 기초통계』를 모집단(광범위한 부문의 민간사회단체 11,345개 수록)으로 활용하여, 지역과 영역별로 표본을 선정해(16개 시·도별로 층화하여 5% 할당, 20개 영역별로 규모비례확률표집 시행), 조사

를 실시(방문조사, 면대면 설문조사)하였다. 결과적으로 지역과 활동영역별로 562개의 표본조사 설문지를 회수하여 시민행동지수 지역별 시민사회단체 측정결과를 제시하였다(한일장신대 SSK-NGO 연구단, 2016).

시민행동지수는 4가지 범주로 구성(시민사회단체 내부역량: ‘사회운동성’, ‘지속가능성’, ‘환경적응성’, 외부역량: ‘정치·제도적 조건’)되었으며, 각 범주에서 관련 사회운동 이론과 개념적 연계 및 측정 가능한 하위지표로 설계되었다. 첫 번째 범주인 ‘사회운동성’은 공익적 차원의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 ‘시민행동(Civic Action)’에 초점을 맞춰, 시민사회단체의 사회개혁과 사회정책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사회운동성은 7개 하위지표로 구성되는데, 회원참여, 시민의식 증진, 비제도적 정치공간에서 동원되는 직접행동, 연대활동(캠페인), 제도정치 내 참여(정부정책), 정부정책 변화, 사회개혁 추구가 제시된다(한일장신대 SSK-NGO 연구단, 2016).

〈표 2〉 시민운동지수(CAI) 범주 및 지표

범주	주요 지표	
사회운동성 (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참여 - 시민의식 증진 - 직접행동 - 연대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정책 참여 - 정부정책 변화 - 사회개혁 추구
지속가능성 (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의 안정성 - 재정의 독립성 - 고유활동의 지속성 - 급여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가 총원의 안정성 - 공간의 안정성 - 활동가 전문성 - 의사소통
환경적응성 (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화 - 사회양극화 - 지역화 -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 - 개인화 - 세대 및 이념갈등 - 적응역량
정치·제도적 조건 (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제도적 환경(중앙) - 정치·제도적 환경(지역) - 사회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버넌스 파트너십(중앙정부) - 거버넌스 파트너십(지방정부)

두 번째 범주인 '지속가능성'은 시민사회단체의 목표와 활동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여 이어갈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의미한다.⁴⁾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지표 8개는 재정의 안정성, 재정의 독립성, 고유활동의 지속성, 급여의 적정성, 활동가 충원의 안정성, 공간의 안정성, 활동가 전문성, 의사소통으로 구성된다.

세 번째 범주인 '환경적응성'은 다양한 환경변화와 도전, 기회 속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어떻게 대응하고 적응하는가를 측정하는 범주이다. 하위 측정지표(8개)는 세계화 이슈 대응, 사회양극화 활동, 지역공동체(지역화) 활동, 거버넌스, 정보화, 개인화, 세대 및 이념갈등, 적응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범주인 '정치·제도적 조건'은 시민사회단체의 외부역량을 측정하는 개념으로,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는 법적, 제도적 개선, 그리고 중앙 혹은 지방정부와의 정책 거버넌스·파트너십 등을 의미한다(공석기, 2016; 한일장신대 SSK-NGO 연구단, 2016).

그러나 이러한 시민행동지수는 다층적인 영역(지역별·분야별)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역량을 측정하여 시민사회 지형도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개발되었지만, 몇 가지 근본적인 한계점들을 노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시민행동지수의 수치 비교, 즉 양적인 비교만으로는 다양한 지역별·분야별 시민사회운동단체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다(공석기, 2016; 최지영, 2016).

더불어, 시민행동지수의 결과는 7개 권역별 시민사회단체들의 특징을 전국 평균과의 비교를 통해 단순 비교하고 있는 데 그치고 있으며, 지역의

특징이 반영되고 있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난다(공석기, 2016; 최지영·이남섭, 2016). 이와 같은 한계점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 연구에서 실시한 해당 연구관계자와의 심층 인터뷰에서도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다.

시민행동지수는 다층적인 지표개발을 통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역량을 비교하는 매우 의미 있는 연구 시도였으나, 조사결과와 수치들의 변별도가 크지 않아서 그 결과를 활용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중요한 한계를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인터뷰 1, 3, 5 주요 내용)

4가지 범주 및 하위지표 간에 그 의미들이 중첩되는 문제도 지적된 부분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 관련되는 연구들을 통해 발전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뷰 1, 2, 4, 6 주요 내용)

이 연구는 시민행동지수 4가지 범주들('사회운동성', '지속가능성', '환경적응성', '정치·제도적 조건') 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 즉 독립변수 간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문제를 상관관계 분석으로 밝혔다. 실제로 '정치·제도적 조건'은 2개 범주('지속가능성', '환경적응성')와의 상관관계가 유의미($p\text{-value} < 0.05$)한 결과를 보였다(각각 0.5629, 0.5832).⁵⁾

즉, 시민행동지수 외부역량 변수인 '정치·제도적 조건'은 내부역량 변수('지속가능성', '환경적응성')와 중첩되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해당 변수('정치·제도적 조건')의 활용은 근본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 '지속가능성' 범주의 이론적인 기초는 사회운동론의 자원동원과 정치과정론에 연결된다.

5) STATA 12.0 상관분석을 통한 다중공선성 분석 결과

III. 퍼지셋 방법론과 분석의 틀

1. 퍼지셋 분석방법론의 특성과 장점

퍼지셋(fuzzy-set) 분석방법론은 버클리 대학(University of Berkeley)의 자데(Zadeh, 1965)가 제시한 질적 비교 분석(QCA)으로, 사례연구방법의 특별한 방법론이다. 최근 Ragin, Kvist 등의 학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Shneide and Rohlfing, 2013; 최영준, 2009). 퍼지셋(fuzzy-set) 분석방법론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꾸준히 사용되던 질적 비교분석(QCA)방법(Ragin, 2000)이 발전한 방법이다. 집합의 속성(crisp set/set theory)을 이용하여 기존의 전통적 집합에서 2가지 소속점수(membership scores: 1 또는 0)만 허용하는 것을 넘어, 0과 1 사이에서 다양한 소속점수를 갖는 퍼지 집합(fuzzy-set)을 활용해 부분적인 소속(membership)뿐만 아니라 정도(degree)의 차이도 보여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퍼지셋 분석방법론은 몇 가지 주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이 방법론은 사례중심연구와 변수중심연구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사례중심의 방법론은 특정 상황을 깊이 있게(in depth) 다루고 있고, 양적중심의 방법론은 변수를 사용하여 많은 사례를 일반화(generalities)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Ragin, 2000). 그러나 퍼지셋 방법론은 질적 사례연구와 변수중심의 양적방법론이 취하는 두 가지 전략을 결합한 방법으로 사례를 유형화하며, 비교연구로 사회적 다양성을 연구하는 방법으로서(이은미 외, 2015; 최영준, 2009; Ragin, 2000; Shneide and

Rohlfing, 2013), 기존의 연구방법과 차별화된다. 둘째, 이러한 특성으로 분석 대상이 되는 사례 수도 비교사례분석과 회귀분석이 다루지 못하는 중간사례(15~25 케이스)를 다룰 수 있으며, 중범위적 비교분석을 가능하게 한다(Ragin, 2000; 최영준, 2009; 이은미 외, 2015). 또한 사례 내 각 특성 간 상호작용 효과에 주목하여 결합적(joint)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최영준, 2009; 이은미 외, 2015; Shneide and Rohlfing, 2013).

셋째, 다양한 사회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많은 사회과학자가 복잡한 사회현상을 분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지만, 실제 연구에서는 사회현상을 단순히 이분법적으로(dichotomy) 0과 1로 구분하여 연구(예: 공공(Public) 섹터와 민간(Private) 섹터 구분, 국내정치(national)와 국제정치(international politics) 비교, 높은(high) 시민사회 역량과 낮은(low) 시민사회 역량의 비교 등)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볼 수 있다(Ragin and Pennings, 2005: 423; Ragin, 2000). 퍼지셋 분석은 퍼지점수 변환방법을 이용하여 기존의 많은 연구가 취하고 있는 0과 1이라는 이분법적 방법을 넘어 그 사이의 다양한 정도를 표현할 수 있게 해 분석 시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최영준, 2009; Ragin and Pennings, 2005: 423). 넷째, 유형을 분류하는 데 좀 더 이론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 많은 연구자가 유형을 분류할 때 군집분석⁶⁾ 같은 양적통계방법을 사용했다(Gough, 2001; Banbra, 2007). 그러나 이들은 연구자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분류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는 반면, 퍼지셋 방법론은 이론적 배경하에서 추출된 이상형(ideal type)을 구성하는 분류기준으로 집합 수

6) 모든 사례가 하나의 유형에 속할 때까지 계속 묶는 위계적 군집분석방법 몇 개의 유형을 미리 설정한 후에 군집을 묶는 양적통계방법으로, K-평균 군집분석이 대표적인.

를 결정한다(Katz et al., 2006; 최영준, 2009; 배기웅·김혜진, 2016). 이에 따라 최근 많은 연구들이 퍼지셋 방법론을 유형을 분류하는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정의룡·양재진, 2012; 석재은, 2014; 김민영·임엽, 2017).

종합적으로 보면, 퍼지셋은 중범위 사례를 다루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방법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다양성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이론적 배경하에서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퍼지셋 이론의 이러한 특성은 활동범위와 조직내부의 특징이 일반적이거나 특수하지 않은 시민사회단체를 분석할 때도 유용한 도구가 된다(Katz et al., 2006).

2. 연구분석의 틀: 퍼지셋 이상형 분석

이 연구에서는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여, 16개 광역시·도별 시민행동지수(CAI)를 비교분석하여 유형화한다. 퍼지 소속 점수(fuzzy membership score)로 나타나는 퍼지셋 이상형 분석은 퍼지집합 이론을 적용하여 퍼지집합으로 전환된 이상형(이념형) 개념에 분석대상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여준다(Kvist 1999; 김종일 2010). 이를 통해 기존의 시민행동지수(CAI) 결과 원자료들(범주별 & 지역별 지수값)을 퍼지셋 소속점수로 변환시켜 각 유형에 속하는 정도를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 적용하는 퍼지셋 이상형 분석으로 기존 군집분석과는 다르게 이상형(이념형, ideal type)을 구성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집합의 수가 결정돼 더 체계적인 유형화와 해석이 가능하다(석재은, 2014; 정의룡·양재진, 2012). 또한, 시민행동지수(CAI)로 조사된 광역시·도별 수치가 각 이상형에 얼마나 속하였는가를 퍼지셋 소속점수로 제시하고, 소속

점수 크기를 비교해 가장 큰 소속점수를 보이는 이상형에 그 사례가 해당하는 것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는 통상적인 이분법적으로 분류하는 수준이 아닌 더 정밀하게 각 지역 사례의 특성과 해당 이상형에 포함된 정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Ragin, 2000, 2008; Kvist, 1999; 최영준, 2009). 시민행동지수(CAI)처럼 혼합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중요한 의미를 폭넓게 반영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연구에서는 퍼지셋 분석으로 퍼지셋 점수를 전환하기 위해 먼저 ‘시민행동지수’ 범주별 최댓값과 최솟값을 활용하여 0과 1 사이의 수치를 얻을 수 있도록 표준화하였다. 이러한 표준화 절차를 거친 후, 퍼지셋 분석의 Calibration 함수를 통해 퍼지셋 소속점수로 변환하였다(STATA 12.0 활용). Calibration은 기본적으로 3가지 경계를 설정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Ragin(2008)이 제안한 방식에 기초해 분기점(crossover point, 중위값) 이상의 점수는 강한 소속점수(해당 값이 완전한 멤버십을 갖는 정도(FI: fully in or full membership))가 95% 이상일 경우(0.95), 그 미만의 점수는 낮은 소속점수(완전히 멤버십이 없는 정도(FO: fully out or full nonmembership)가 5% 이하일 경우(0.05))로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퍼지셋 이상형분석 소속점수(Degree of Membership Score)를 산출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다.

$$\bullet \text{ 소속점수(degree of membership) = } \frac{\exp(\log \text{ odds})}{(1+\exp(\log \text{ odds}))}$$

한편, 이 연구에서 퍼지셋 소속점수는 ‘부정의 원리’(principle of negation)와 ‘최솟값의 원리’(minimum principle), 그리고 ‘최댓값의 원리’(maximum principle)에 따라 산출되고 해석된다. 앞에서 살펴

본 시민행동지수(CAI)의 4가지 범주 중 통계적 한계를 내포한 변수('정치·제도적 조건')를 제외하고 3가지 변수들('사회운동성(Civil Mobility: CM)',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SU)', '환경적응성(Environment Adaptability: EA)')을 이 연구에서는 설정한다.

이때 부정의 원리는 각각의 범주에 '1-해당 범주의 퍼지셋 소속점수'를 통해 '비(약)시민운동성(cm)', '비(약)지속가능성(su)', '비(약)환경적응성(ea)'의 부정범주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각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활용하여 이상형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사회운동성(CM)', '지속가능성(SU)', '환경적응성(EA)'의 3가지 변수를 기준으로 총 8개의 이상형(ideal type) 집합(높은 또는 낮음)을 상정할 수 있게 된다(〈표 3〉 참조).

또한, 이러한 8가지 유형(집합)은 '최솟값 원리'(minimum principle)와 '최댓값 원리'(maximum principle)에 따라 산출되고 해석된다(Kvist, 1999; 정의룡·양재진, 2012; 박은하, 2013). '최솟값의 원리'는 8가지 이상형 유형분류의 기준별로

산출된 퍼지점수 중 최솟값이 해당 유형의 퍼지셋 소속점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해당 유형 집합을 구성하는 3개 요소들(CM(사회운동성), SU(지속가능성), EA(환경적응성))의 퍼지점수 중 최솟값을 채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위의 8가지 이상형 모델 중 CM*SU*EA 유형에서 CM의 퍼지점수가 가장 작게 나타난다면, CM*SU*EA 유형의 퍼지셋 소속점수는 CM의 퍼지 점수로 표시된다.

'최댓값의 원리'란 각 16개 광역시·도 지역의 퍼지셋 점수는 최종적으로 8가지 유형의 퍼지셋 소속점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중 소속점수가 가장 큰 유형이 해당 지역의 유형이 된다.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의 8가지 이상형 퍼지셋 소속점수는 CM*SU*EA(0.605), CM*SU*ea(0.255), CM*su*EA(0.047), CM*su*ea(0.047), cm*SU*EA(0.047), cm*SU*ea(0.047), cm*su*EA(0.047), cm*su*ea(0.047)로 밝혀졌는데(아래 〈표 4〉 참조), 이들 8개 퍼지셋 소속점수 중 CM*SU*EA 소속점수가 0.605로 가장 컸기 때문에 울산 지역의 퍼지셋 이상형 유형은 CM*SU*EA 유형이 되는 것이다.

〈표 3〉 퍼지셋 이상형(Ideal Type) 8개 집합(유형)

시민행동지수 범주			퍼지셋 이상형	유형별 특성
사회 운동성	지속 가능성	환경 적응성		
CM	SU	EA	CM*SU*EA	사회운동성, 지속가능성, 환경적응성이 모두 높은 유형
CM	SU	ea	CM*SU*ea	사회운동성 및 지속가능성은 높지만 환경적응성은 낮은 유형
CM	su	EA	CM*su*EA	사회운동성 및 환경적응성은 높지만 지속가능성은 낮은 유형
CM	su	ea	CM*su*ea	사회운동성은 높지만 지속가능성 및 환경적응성은 낮은 유형
cm	SU	EA	cm*SU*EA	사회운동성은 낮지만 지속가능성 및 환경적응성은 높은 유형
cm	SU	ea	cm*SU*ea	사회운동성 및 환경적응성은 낮지만 지속가능성은 높은 유형
cm	su	EA	cm*su*EA	사회운동성 및 지속가능성은 낮지만 환경적응성은 높은 유형
cm	su	ea	cm*su*ea	사회운동성, 지속가능성, 환경적응성이 모두 낮은 유형

IV. 퍼지셋 이상형 분석결과

16개 광역시·도별 시민행동지수(CAI)의 결과를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으로 비교분석하여 유형화한 결과는 <표 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나타난다.

시민행동지수의 3가지 범주인 사회운동성, 지속가능성, 환경적응성이 모두 높은 CM*SU*EA 유형(I유형)에는 대구광역시(퍼지셋 소속점수 0.606), 울산광역시(0.563), 제주도(0.535)가 해당한다. 반면, 3가지 범주(사회운동성, 지속가능성, 환경적응성)가 모두 낮은 cm*su*ea 유형(VIII 유형)에는 전라남도(퍼지셋 소속점수 0.688), 부산광역시(0.671), 대전광역시(0.513)가 포함되었다.

II유형(CM*SU*ea: 사회운동성 및 지속가능성은 높고 환경적응성은 낮음)에는 경기도(퍼지셋

소속점수 0.601)가 속하였다. III유형(CM*su*EA: 사회운동성 및 환경적응성은 높고 지속가능성은 낮음)에는 광주광역시(퍼지셋 소속점수 0.688)와 서울특별시(0.553)가 포함되었다. IV유형(CM*su*ea: 사회운동성만 높고 지속가능성과 환경적응성은 낮음)에는 인천광역시(퍼지셋 소속점수 0.688)와 충청남도(0.616)가 속하였다. V유형(cm*SU*EA: 사회운동성만 낮고 지속가능성과 환경적응성은 높음)에는 전라북도(퍼지셋 소속점수 0.731), 충청북도(0.527)가 포함되었다. VI 유형(cm*SU*ea: 사회운동성 및 환경적응성은 낮고 지속가능성만 높음)에는 강원도(퍼지셋 소속점수 0.568)와 경상북도(0.513)가 속하였다. VII유형(cm*su*EA: 사회운동성 및 지속가능성은 낮고 환경적응성만 높음)에는 경상남도(퍼지셋 소속점수 0.553)가 해당하였다.

<표 4> 광역시·도 지역별 퍼지셋 이상형 분석결과

유형	I	II	III	IV	V	VI	VII	VIII	해당 유형
지역	CM*SU*EA	CM*SU*ea	CM*su*EA	CM*su*ea	cm*SU*EA	cm*SU*ea	cm*su*EA	cm*su*ea	
대구	0.606	0.255	0.047	0.047	0.394	0.255	0.047	0.047	I: CM*SU*EA
울산	0.563	0.047	0.437	0.047	0.062	0.047	0.062	0.047	
제주	0.535	0.345	0.157	0.157	0.464	0.345	0.157	0.157	
경기	0.399	0.601	0.388	0.387	0.388	0.329	0.329	0.329	II: CM*SU*ea
광주	0.312	0.255	0.688	0.255	0.047	0.047	0.047	0.047	III: CM*su*EA
서울	0.359	0.359	0.553	0.447	0.298	0.298	0.298	0.298	
인천	0.251	0.312	0.251	0.688	0.054	0.054	0.054	0.054	IV: CM*su*ea
충남	0.306	0.384	0.306	0.616	0.217	0.217	0.217	0.217	
전북	0.269	0.235	0.092	0.092	0.731	0.235	0.092	0.092	V: cm*SU*EA
충북	0.047	0.047	0.047	0.047	0.527	0.473	0.364	0.364	
강원	0.269	0.269	0.269	0.269	0.432	0.568	0.364	0.364	VI: cm*SU*ea
경북	0.047	0.047	0.047	0.0474	0.047	0.513	0.047	0.487	
경남	0.047	0.047	0.071	0.071	0.047	0.047	0.553	0.447	VII: cm*su*EA
전남	0.054	0.269	0.054	0.269	0.054	0.312	0.054	0.688	VIII: cm*su*ea
부산	0.145	0.164	0.145	0.329	0.145	0.164	0.145	0.671	
대전	0.464	0.464	0.464	0.464	0.466	0.487	0.466	0.513	

〈그림 1〉은 광역시·도별 시민행동지수의 퍼지셋 이상형 분석결과와 기존 시민행동지수 평균 결과 값과의 비교분석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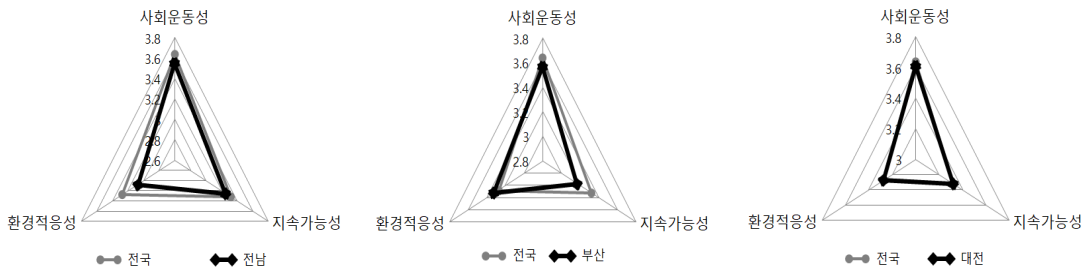
이와 같은 퍼지셋 이상형 분석결과는 시민행동지수의 평균 결과 값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부

분이 있지만, 실제로 상당한 격차가 나타나는 측면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의 내용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I유형(CM*SU*EA: 사회운동성, 지속가능성, 환경적응성 모두 높음, 긍정의 범주)에 속하는 울산의 경우 시민행동지수 전체 평균은 3.57로 16개 광역시·도 중에 1위에 해당하였는데,



【 I 유형: CM*SU*EA (긍정의 범주 유형) 】

지자체	범 주(시민행동지수)			평균 (시민행동지수)
	사회운동성	지속가능성	환경적응성	
전국	3.64	3.32	3.27	3.41
대구	3.65 (7위)	3.62 (1위)	3.38 (3위)	3.55 (2위)
울산	3.81 (2위)	3.35 (7위)	3.56 (1위)	3.57 (1위)
제주	3.68 (8위)	3.49 (3위)	3.34 (5위)	3.48 (4위)



【 VIII 유형: cm*su*ea (부정의 범주 유형) 】

지자체	범 주(시민행동지수)			평균 (시민행동지수)
	사회운동성	지속가능성	환경적응성	
전국	3.64	3.32	3.27	3.41
전남	3.55 (11위)	3.25 (12위)	3.07 (15위)	3.29 (13위)
부산	3.57 (10위)	3.17 (15위)	3.15 (14위)	3.29 (13위)
대전	3.61 (9위)	3.32 (9위)	3.27 (9위)	3.40 (9위)

〈그림 1〉 광역시·도별 시민행동지수 퍼지셋 이상형 분석결과 주요 비교(I 유형 & VIII 유형)

사회운동성 3.81(2위), 환경적응성은 3.56(1위) 수치는 높게 나왔지만 지속가능성은 3.35, 7위에 해당하는 수준인 것으로 시민행동지수 결과에서 나타났다. 또한 I유형의 대구도 전체 평균은 3.55로 2위에 올랐고, 지속가능성 3.62(1위), 환경적응성 3.38(3위)로 높았지만, 사회운동성은 3.65(7위)에 해당하는 수준인 것으로 제시되었었다.

이러한 기존 시민행동지수 단순 결과와의 차이는 특히, VIII유형(cm^*su^*ea : 3가지 범주 모두 낮음)에 속하는 광역시·도의 분석결과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대전의 시민행동지수 수치는 사회운동성(3.61), 지속가능성(3.32), 환경적응성(3.27) 모두 전국 9위이며, 전체 평균도 3.40로 9위인 것으로 제시되었지만, 퍼지셋 이상형 분석에서는 사회운동성, 지속가능성, 환경적응성이 모두 낮은(부정의 범주) VIII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퍼지셋 이상형 분석결과는 기존의 시민행동지수의 평균결과 값으로는 비교하기 어렵거나 또는 단순 양적비교로 순위를 매기는 정도로 밖에 결과 해석을 할 수 없었던 한계를 넘어 더 구체적으로 각 지역 사례의 특성과 해당하는 이상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3개 범주의 혼합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민행동지수의 지역별 결과를 폭넓은 의미로 연결하여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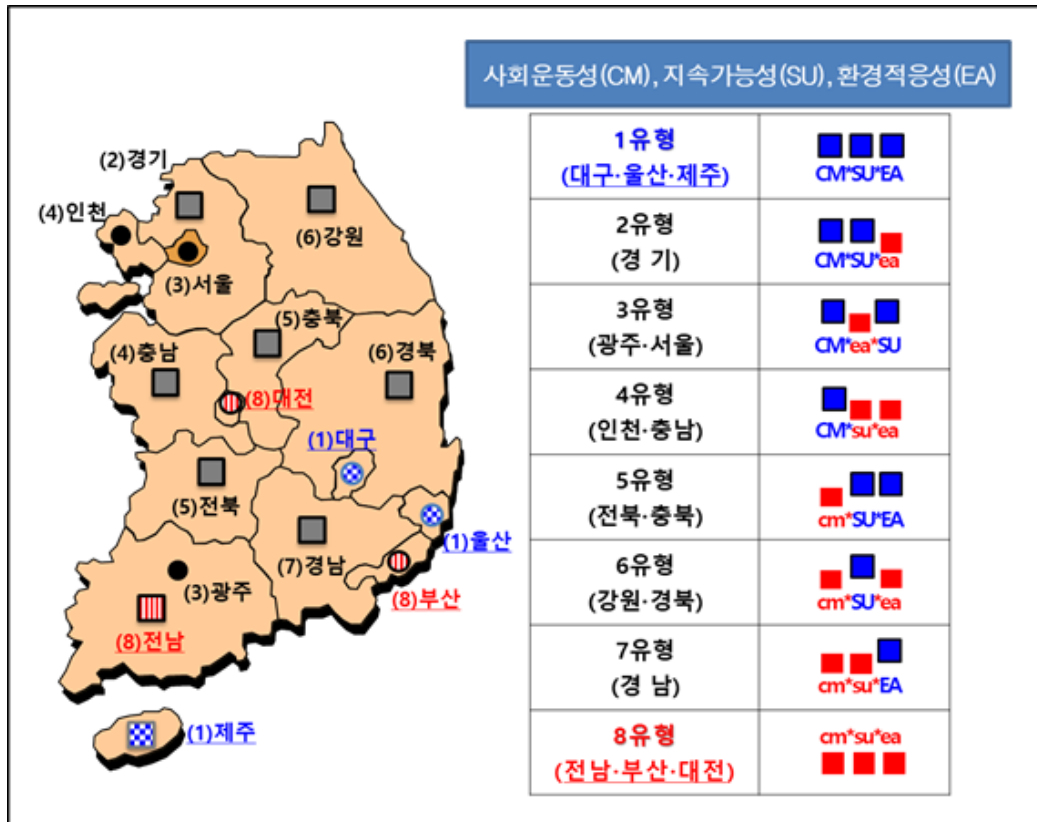
V. 결론: 광역시·도별 유형분석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역량발전 제언

이 연구는 퍼지셋 분석방법론으로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역량 측정을 위해 개발된 시민행동지수를 퍼지소속 점수화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앞서 밝혀진 바와 같이 16개 광역시·도는 8개의

퍼지셋 이상형으로 유형화되었다. 시민행동지수 3가지 범주(시민운동성(CM/cm), 지속가능성(SU/su), 환경운동성(EA/ea))의 높고 낮음의 특성에 따라, I유형(CM^*SU^*EA , 긍정의 범주)에는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도, II유형(CM^*SU^*ea)에는 경기도, III유형(CM^*su^*EA)에는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 IV유형(CM^*su^*ea)유형에는 인천광역시와 충청남도, V유형(cm^*SU^*EA)에는 전라북도과 충청북도, VI유형(cm^*SU^*ea)에는 강원도와 경상북도, VII유형(cm^*su^*EA , 부정의 범주)에는 경상남도, VIII유형(cm^*su^*ea)에는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가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2〉 참고).

이와 같은 유형분석 결과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역량과 활동들이 사회공간적 실천으로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 상호 결합되어 나타나며, 장소적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 드러나는 특성을 일면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김왕배, 2000; 금홍섭·이은구, 2016; Uphoff, 2000). 특히, 이 연구가 수행한 퍼지셋 이상형 비교분석 결과는 지역의 특수성과 상황에 기반을 두고 성립하는 ‘맥락화(contextualization)’의 장소성(지역성), 즉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이뤄지는 사회공간적 실천이 아닌 특정의 구체적인 공간상 차이가 드러나는 ‘장소(지역)의 정치’의 맥락을 일정 부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연구에서 활용된 퍼지셋 이상형 분석의 3가지 범주(사회운동성, 지속가능성, 환경적응성)에서 퍼지셋 부정의 원리에 따라 ‘비(약)시민운동성(cm)’, ‘비(약)지속가능성(su)’, ‘비(약)환경적응성(ea)’의 부정범주로 분석되는 특성과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 역량발전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안할 수 있다. 즉, 각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광역시·도 정부가 해당 역량을 증진하고



〈그림 2〉 16개 광역시·도 퍼지셋 이상형 분석 결과(8개 유형) 지도

지원할 수 있는 시사점으로 다음과 같이 도출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비(약) 시민운동성'을 나타내는 V, VI, VII, VIII 유형에 속하는 광역시·도 지역(8개: 전북, 충북, 강원, 경북, 경남, 전남, 부산, 대전)에서는 회원참여와 시민의식 증진, 연대활동, 정부정책 참여, 변화 추구 같은 관련 역량요소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이를 위해 우선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가 보조적인 역할수행 수준을 넘어 보완적(complementary)이며 전환적(transitional)인 관계로 변화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지방)정부정책 참여와 변화추구, 연대활동의 역할이 상호협력적(의존적) 거버넌스 네트워크상 공공의 파트너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Huh, 2010;

Klijn and Skelcher 2007; Buckwalter, 2014). 또한, 회원참여와 시민의식 증진이 근본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역 수준에서 관련 지원조례(공익적 시민활동 활성화를 지원하는 '공익활동촉진조례'(가칭) 등)를 제정하여 법제도적 기반 위에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NGO·NPO센터 같은 중간지원조직을 자치법규(조례)상 조직으로 설립해 시민사회단체의 공익운동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비(약)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III, IV, VII, VIII 유형에 속하는 광역시·도 지역(8개: 광주, 서울, 인천, 충남, 경남, 전남, 부산, 대전)에서는 시민사회단체 자체의 지속가능성과 직

접 연결되는 재정의 안정성과 독립성, 활동가 충원 안정성, 활동가 전문성, 고유활동 지속성 등 관련 역량요소가 더욱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시민사회단체의 재정력과 활동가 충원은 단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고 회원을 관리하며 활동의 주요 추진체가 되기 때문에 이를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높다. 시민사회단체를 위한 지속적 행·재정적 지원과 시민사회단체 간 지원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지역별 NGO지원센터 등) 같은 매개적(intermediary) 조직의 활동이 지역 공동체에서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윤봉란, 2014; 조철민, 2016). 또한 활동가 전문성과 고유활동 지속성 측면에서도 중간지원조직으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자원(지방·중앙)을 동원하여 활동가 교육·훈련, 단체 컨설팅 등을 진행해야 한다(Lawther, 2002; 조철민, 2016). 지방정부는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중간지원조직 자체에 너무 과도한 힘이 쏠리는 역효과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직을 중심으로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 지원과 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도록 플랫폼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비(약) 환경적응성'을 나타내는 II, IV, VI, VIII 유형에 속하는 광역시·도 지역(8개 지역: 경기, 인천, 충남, 강원, 경북, 전남, 부산, 대전)에서는 새로운 국내외 변화하는 패러다임(정보화(4차산업혁명), 지구화·지역화, 개인화 등) 속에 적응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더 명확하게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 스스로 현재의 관련 역량을 명확하게 자각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며, 그동안의 단발적인 주창성(advocacy) 중심의 운동방식과는 다르게, 변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활동

가들의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연속적인 교육·훈련을 마련해야 한다(정호범, 2017). 더불어, 관련 프로그램(전문가 교육, 해외 교류·협력 등)의 지원을 중간지원조직과 지방정부, 더 나아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체 내 소수의 지도자나 상근자들에게 의지한 하향식의 위계적 운영이 아닌 다양한 전문가와 회원들의 필요와 요구에 개방적으로 열려있는 상향적 방식의 유연한 단체운영으로 탈바꿈하여 변화 대응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정시구, 2017). 특히, '네트워크화된 개인'으로 표상되는 개인화·정보화된 현대와 미래사회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시민교육과 참여·협력 증진을 위한 새로운 의사소통과 협업 역량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블록체인) 거버넌스 흐름 속에서 디지털 혁신의 다양한 현장에서 시민사회단체가 네트워크화된 개인에 동기를 부여하고 이끄는 '디지털 혁신가'(digital Innovator)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 역량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증진되어야 할 것이다(허태욱, 2017).

한편, 이 연구의 한계로는 주요 광역행정구역에서 시민단체 역량의 차이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과 관련한 분석이 제시되지 못한 점을 꼽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 관련 사례 연구 등으로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금홍섭·이은구, 2016, "한국 지역 시민단체의 활동역량에 관한 비교연구: 대전, 대구, 광주지역 주창형 NGO의 활동차이를 중심으로", 『NGO 연구』, 11(2): 35-75, 한국NGO학회.

- 김민영·임엽, 2017, “시민단체 및 고용 거버넌스의 역량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9(5): 109~132, 한국지역개발학회.
- 김왕배, 2000, 『도시, 공간, 생활세계: 계급과 국가 권력의 텍스트 해석』, 한울.
- 김희진·김인신·류지호, 2017, “지역주민의 착근도에 의한 지역사회 만족도가 지역주민의 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29(9): 289~303, 한국관광레저학회.
- 김종일, 2010, “대륙복지국가의 활성화정책 추이에 관한 퍼지 집합 이념형 분석, 2000-2007”, 『사회보장연구』, 26(2): 253~284, 한국사회보장학회.
- 공석기, 2016, “서울 시민사회단체 역량 톨아보기- 등지형 정치기회구조와 시민행동지수를 중심으로”, 『신학과 사회』, 30(2): 135~176, 한일장신대.
- 김정희, 2016, “부산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역량과 조건 연구-시민행동지수(CAI)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 『신학과 사회』, 30(1): 149-190, 한일장신대.
- 노진철, 2016, “경북지역의 정치적 보수화와 시민행동지수”, 『신학과 사회』, 30(1): 101~148, 한일장신대.
- 박상필, 2012, “시민사회지표 (CSI) 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비영리연구』, 11(1): 39~68, 한국비영리학회.
- _____, 2015, “아시아 4개 권역 4개국의 시민사회역량 비교”, 『아시아연구』, 18(2): 61~91, 한국아시아학회.
- _____, 2016, “한일간의 시민사회 역량 비교”, 『NGO 연구』, 11: 1~31, 한국NGO학회.
- 박은하, 2013,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복지국가 변화 연구: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통한 OECD 국가 경험 (1990-2009)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6: 179~204,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배기웅·김혜진, 2016, “관광객 유동인구의 새로운 군집 분석”, 『관광레저연구』, 28(1): 25~43, 한국관광레저학회.
- 석재은, 2014, “OECD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의 다차원적 평가와 지속가능 유형별 복지정책의 특성”, 『보건사회연구』, 34(4): 5~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봉란, 2014, “[지역 리포트 > 광주 / 광주NGO지원센터] 지역공동체활성화와 공익적 시민활동을 지원하는, 광주NGO시민재단”, 『협동조합네트워크』, 67: 108~123.
- 이남섭, 2016, “전북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측정 연구-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사례의 전국 비교”, 『신학과 사회』, 30(1): 285~314, 한일장신대.
- 이선미, 2015, “특집논문: 지역민간단체 유형별로 본 자원봉사 활동 및 네트워크의 특징: 서울시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13권 1호: 39~75,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 이은미·이은국·고기동, 2014, “질적비교분석 (QCA) 방법에 의한 제한된 다양성 (limited diversity) 문제로의 접근”, 『한국정책학회보』, 23(4): 311~333, 한국정책학회.
- 이창언, 2016, “시민행동지수를 통해서 본 경기도 시민사회단체의 역량과 과제”, 『신학과 사회』, 30(1): 315~353, 한일장신대.
- 정시구, 2017, “공생공영공의주의 이상사회를 위한 세계평화여성연합의 NGO활동 사례 연구”, 『통일사상연구』, 12 :129~157, 통일사상연구원.
- 정의룡·양재진, 2012, “서구와 한국 복지국가의 변화와 지속”, 『한국정치학회보』, 46(1): 309~336, 한국정치학회.
- 정호범, 2017,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시민교육의 방향”, 『사회과교육연구』, 24(4): 75~89,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 조철민, 2015, “비정부단체 (NGOs) 의 활동공간으로서 서울 지역 시민사회의 지형”, 『공간과 사회』, 51: 179~211, 한국공간환경학회.
- 주성수, 2011, “특집 논문: 한국시민사회의 영향과 환경: 시민사회의 영향력에 관한 경험적 분석: 정부와 시민사회 관계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9(1): 3~29,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 최영준, 2009, “기획논문: 사회과학에서 퍼지셋 활용의 모색: 퍼지 이상형 분석과 결합 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5(3): 307~337,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최지영, 2016, “시민행동지수로 본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역량 비교연구-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신학과 사회』, 30(3): 223~247, 한일장신대.
- 최지영·이남섭, 2016, “시민행동지수로 본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역량 비교연구: 춘천시와 원주시를 중심으로”, 『NGO 연구』, 11(1): 33~55, 한국NGO학회.

- 한일장신대 SSK-NGO 연구단, 2016, 『한국시민행동지수 종합조사 I』, 전주: 학예사, 1~383.
- 허태욱, 2017, “4차산업혁명시대 블록체인 거버넌스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시민사회의 역할에 관한 서설적 연구”, 『NGO 연구』, 12권 2호: 95~125, 한국NGO 학회.
- Anheier, Helmut & Sally Stares, 2002, “Records of Global Civil Society”, *Global Civil Society* : 241~377.
- Bernhard, Michael & Dong-Joon Jung & Eitan Tzelgov & Michael Coppedge & Staffan I. Lindberg, 2015, “The Varieties of Democracy Core Civil Society Index”, *Varieties of Democracy Institute: Working Paper* No. 13.
- Buckwalter, Neal D., 2014, “The Potential for Public Empowerment through Government organized Particip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4(5): 573~584.
- CIVICUS, 2006, “Civicus Civil Society Index Report for the Republic of Sierra Leone: A Critical Time for Civil Society in Sierra Leone”, [Online], Available at: http://www.civicus.org/media/CSI_SierraLeone_Country_Report.pdf(Accessed January 29, 2018).
- _____, 2011, “Civil Society Index: Key Findings from 2008-2011”, <https://www.civicus.org/index.php/media-resources/news/1369-civicus-civil-society-index-key-findings-from-2008-2011> (Accessed January 29, 2018).
- _____, 2012, “The Origins of the Classic CSI”, <https://civicus.org/index.php/media-resources/reports-publications/151-csi-reports/719-the-origins-of-the-classic-csi> (Accessed January 29, 2018).
- _____, 2013, “The Civicus 2013 Enabling Environment Index”, https://www.civicus.org/downloads/2013_EEI%20REPORT.pdf (Accessed January 29, 2018).
- Fukuyama, F., 2001,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development”, *Third world quarterly*, 22(1): 7~20.
- Freedom House, 2012, “Nations in Transit: Methodology” http://www.freedomhouse.org/template.cfm?page=352&ana__page=330&year=2006 (Accessed December 22, 2017).
- Huh, TW., 2010, “Towards Reflexive Gover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25(3): 1~22.
- Katz, Hagai, Helmut Anheier and Marcus Lam, 2006, “Fuzzy set approaches to the study of global civil society”, *Global Civil Society*, 7: 186~96.
- Keane, John, 2013, *Civil society: Old images, new visions*, John Wiley & Sons.
- Klijn, E. H., and C. Skelcher, 2007, “Democracy and governance networks: Compatible or not?”, *Public Administration*, 85(3): 587~608.
- Kvist, J., 1999, “Welfare reform in the Nordic countries in the 1990s: using fuzzy-set theory to assess conformity to ideal typ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9(3): 231~252.
- _____, 2007, “Fuzzy set ideal type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0(5): 474~481.
- Lawther, Wendell C., 2002, *Contracting for the 21st century: A partnership model*, Price water house Coopers Endowment for the Business of Government.
- Ragin, Charles C., 2000, *Fuzzy-set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2008, *Redesigning social inquiry: Fuzzy sets and beyond*, 24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agin, Charles C. and Paul Pennings, 2005, “Fuzzy sets and social research”,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33(4): 423~430.
- Schneider, Carsten Q. & Ingo Rohlfling, 2016, “Case studies nested in fuzzy-set QCA on sufficiency: formalizing case selection and causal inference”,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45(3): 526~568.
- Thomas, John Clayton, 2013, “Citizen, customer, partner: Rethinking the place of the public in public manage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3(6): 786~796.

- Uphoff, Norman, 1993, "Grassroots organizations and NGOs in rural development: Opportunities with diminishing states and expanding markets", *World Development*, 21(4): 607~622.
- Uphoff, Norman, 2000, "Understanding social capital: learning from the analysis and experience of participation",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215~249.
- Vigoda, E., 2002, "From responsiveness to collaboration: Governance, citizens, and the next gener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2(5): 527~540.
- Zadeh, Lotfi A., 1996, "Fuzzy Sets, Fuzzy Logic, And Fuzzy Systems: Selected Papers by Lotfi A Zadeh", 394~432.
- 홈페이지
- USAID 홈페이지, www.usaid.gov/what-we-do/democracy-human-rights-and-governance/cso-sustainability-index-methodology, 2017년 12월 22일 접속.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홈페이지, <http://isdpr.org/activities/result/01>, 2017년 12월 22일 접속.

원 고 접 수 일 : 2018년 3월 13일

1차심사완료일 : 2018년 3월 30일

최종원고채택일 : 2018년 4월 10일

